

2021년 서평쓰기대회 장려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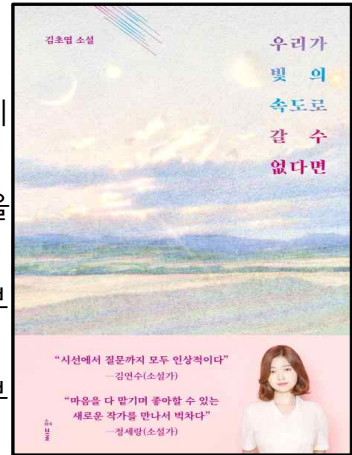
장려상

서명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 김초엽 : 허블, 2019

제목 : 같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은

공상과학을 주제로 한 김초엽의 소설은 묘하고 신비롭다. 과학기술에 삼켜진 듯한 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그 세계는 현실과 멀지 않아 보인다. 외계인과의 교류, 배아 기술과 그에 관한 디자인 연구, 우주 임무를 통한 행성 여행, 죽은 사람을 도서관에 복원해놓는 기술 등 어찌 보면 매우 먼 미래처럼 보이는 세계이지만, 김초엽의 소설을 찬찬히 읽다 보면 그 세계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세계가 멀지 않은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실감 하게 하는데, 이것이 독자로부터 하여금 '그 세계관'과 '현실'을 겹쳐 보게 한다.



공상과학을 떠올리면 흔히 어떤 느낌을 받는가? 차가운 느낌을 피부보다는 플라스틱을, 감정보다는 이성 혹은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김초엽 작가가 그린 세계관 또한 그런 세계다. 폭발적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연구됨에 따라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차별의 종류는 늘어나며, 사람들의 욕심은 점점 더 커진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세계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이 소설이 따뜻함을 간직하는 이유는 그 안에 여전히 '사람 같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래로 나아가는 세상은 다시 과거를 그리워한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주인공, 한나는 가까웠던 슬렌포니아 행성이 '우주 임무' 개발로 인해 순식간에 먼 행성이 되면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된다. 한나는 170세 노인이 될 때까지 폐정거장에서 오지 않을 행성 기차를 기다린다. 여기서 한나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 각각 기술과 가족이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곧 기술이 한나에게서 가

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고 만다. 한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전에는 떨어져도 같은 하늘 아래 있었는데.' 기술이 사람들 간의 거리를 멀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 스마트 기기로 인해 사람들 간의 구두 대화는 단절되고, 밖에서 뛰어노는 문화도 사라졌다. 잃어가는 게 많은 세상임에도 기술은 마친 듯이 끝도 없이 발전한다. 없는 것을 그리워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 멀고도 먼 미래에서 급하게 달려가다가 잃어버리고 만 과거와 현재를 그리워할 것이다.

타인이기에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스펙트럼'에서 희진은 다른 행성에서 '루이'라는 생명체를 만난다. 서로 의사소통도 불가능하고, 처음에는 너무나 다른 서로의 모습에 경계했지만, 둘은 점점 더 서로가 있는 삶에 익숙해진다. 언어 연구가인 희진은 루이의 언어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루이가 남긴 문장 하나를 해석한다. '그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생물이다.' 자신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희진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희진과 루이는 명백히 다른 존재임인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생물이다. 그 안에서도 둘은 서로의 다름에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외심을 갖는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이기에 두려워하면서도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한 물음은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 등장하는 릴리는 유전병으로 인해 얼굴에 흉측한 흉터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를 괴물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릴리는 자신이 가진 배아 기술로, 아름답고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인류에 선한 영향을 베푸는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비개조인과, 개조인의 위계질서가 생기면서 또 다른 차별적 요소가 생기고 만다. 유토피아를 세우려던 바람과는 달리, 디스토피아와 같은 세계를 만들고 만 것이다. 릴리는 또 다른 유토피아를 세우기 위해 지구 밖에 결함이 있는 아이들로만 구성된 마을을 건설한다. 그 아이들은 모두 릴리가 만들어 낸 배아 기술로 태어난 이들이다. 하지만 릴리는 어찌 된 이유인지 다시 지구로 돌아간다. 그녀의 딸인 올리브는 릴리가 다시 지구로 돌아간 이유와 지구로 떠난 순례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서로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떠난 올리브는 자신의 얼굴에 난 긴 흉터로 인해 차별을 받는데, 지구의 비개조인에 속하는 델피가 그녀를 도와준다. 델피와의 감정적 교류가 깊어진 올리브는 지구에 남을 것을 선택한다. 둘의 무덤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델피의 올리브. 분리주의에 맞서는 삶을 살다.' 우리는 분명히 같은 인류임에도 다른 모습을 하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 이 세가지의 '다름'은 모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들이다. 배아 기술이 발달한 세계에서는 그 다름의 정도가 극심하게 정형화되어 차별은 더욱 심해진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루이와 올리브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차별받는 요소 앞에 서서 서로를 보호하고, 또 다른 타인에게는 상처를 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디스토피아 즉, 우리가 사는 '지구' 역시 아름답지 못할 이유는 또 무엇일까. 사람 간의 '사랑'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다.

흩어지더라도 이어질 수만 있다면

김초엽의 소설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시작한다. '관내분실'에서는 죽은 사람을 데이터로 복원해 도서관에 보관해놓는 소재가 나오는데, 지민은 이곳에서 엄마를 잃어버린다. 어떤 장소에서 사라진 것도 아닌, 말하자면 컴퓨터 내에서 사람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묘한 이야기다. 지민의 엄마 '은하'를 찾기 위해선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 필요했다. 물건에 있는 고인의 강력한 기억을 끄집어내 스캐닝해서 사라진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이다. 지민은 은하에게 소중한 물건인지 찾아내고 알아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엄마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게 없었는지, 엄마가 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었는지 깨닫게 된다. 은하는 출판사에서 표지 디자인 일을 했지만, 흔히 말하는 임신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되었다. 지민의 아버지인 현욱은 그런 일은 언제나 있어온 일이라며 쉽게 넘어갔지만, 현재 임신 중인 지민은 그 사실을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동안 지민은 은하와 끊겨 있었다. 지민은 진작에 집을 나서 독립을 했고, 은하가 죽고 나서도 2년 동안 찾지 않았을 정도로 은하를 혐오하고 있었다. 그런 지민이 다시 은하를 찾으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자신의 뱃 속의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기시감을 느껴서다. 그리고 그 기시감은 끊어졌던 은하와의 연결점이 서서히 이어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현재의 여성이 과거의 여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 연결점이 모이고 모여서 여성은 서로를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